

中 선전으로 간 JY, “BYD 방문, 전기차 사업 논의”



**두번째 출장... 주요 경영진 동행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한 경영 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중국 선전으로 출국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두 번째 해외 출장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난번 유럽 출장과 달리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동행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복귀 신호탄을 쏘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2일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중국 선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출장에는 김기남 대표를 비롯해 진교영 메모리 사업부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등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주요 경영진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동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출장에서는 BYD를 비롯한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행 역시 지난번 유럽·캐나다 출장 때와 마찬가지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영 행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선전을 첫 아시아 출장지로 정한 것도 이런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지금은 ‘중국 혁신의 메카’, ‘중국의 실리콘밸리’ 등으로 불린다.

선전에 있는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I

T 기업으로, 텐센트와 화웨이 같은 중국 최대 규모의 IT 기업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DJI도 선전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BYD는 전기차로 유명하며 직원 수만 22만명에 이른다. 자동차 사업과 함께 IT 용 부품, 배터리 등도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중국 전기차-배터리 업체인 BYD의 지분 2%를 약 500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자동차 전장·오디오 전문업체인 하만을 인수하는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출장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이번에는 경영진들과 함께 해외 현장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영복귀 행보로 해석했다.

하지만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의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재판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 이전에도 업무의 80% 이상이 글로벌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고 해외 출장도 잦았다”면서 “앞으로도 공식적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글로벌 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행보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최초 폴더블’ 타이틀의 주인공은 어디?

**주요 스마트폰 업체 관련 특허 출원
삼성전자, 최초보다 완성도에 집중**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이 정제된 스마트폰 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누가 먼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일찌감치 폴더블 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며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특허청(USPTO)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폴더블 폰을 개발 중이다. 애플이 개발 중인 폴더블 폰은 평상시에는 5.5인치 제품의 모습에서 펼치면 9.7인치 아이패드와 전환되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플렉서블 디스

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LG전자도 지난해 7월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에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갖춘 스마트폰’이란 이름의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며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중싱통신(ZTE)은 지난 2월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엑스엠’이라는 이름의 폴더블 폰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ZTE가 공개한 제품은 마치 두 개의 스마트폰을 옆으로 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 폴더블 폰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화웨이는 이미 지난해 9월 WIPO에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올해 11월 출시를 목표로 세계 최초라는 명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보다는 제품의

완성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이경태 무선기획팀 상무는 지난 26일 열린 1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폴더블 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몇 년간 연구개발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로 여러 업체와 협업을 진행중”이라며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단순히 세계최초에 집중하기보다는 고객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품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는 “부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안정화해야 하고 새로운 활용사례가 완료되면 공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단 폴더블 폰이 출시되면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폴더블 폰을 미래의 먹거리로 삼아 치열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고, 출시된다면



해외 디자이너 테크컨피그레이션(Techconfigurations)이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윙(Galaxy Wing)’의 컨셉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테크컨피그레이션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은 2019년 70만대에서 2021년 3040만대, 2022년 5010만대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출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일단 기존 스마트폰과 다른 외형 탓에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관심이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폴더블 폰의 가격, 화면이 반으로 접히는 부분의 자연스러운, 화면의 두께 문제 등의 부분에서 어느 업체가 소비자를 만족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컨테이너선에 세계 첫 ‘공기유통시스템’

삼성중공업

연료 효율 4% 가량 높여 절감 효과

삼성중공업이 2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공기유통시스템’을 적용하며 다시 한번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

삼성중공업은 글로벌선사인 스위스 MSC로부터 지난해 수주한 2만3000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연료 효율을 약 4% 가량 높일 수 있는 ‘삼성 공기유통시스템(SAVER Air)’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기유통시스템은 선체 바다 면에 공기를 분사해 선체 표면과 바닷물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선박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연비를 향상시키는 에너지 절감장치(ESD)의 일종이다. 지난 2010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저속선박인 블록 운반선에 처음 적용한 뒤 연안여객선, 소형 석유화학제품운반(PC)선 일부에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초대형 고속 컨테이너선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공기유통시스템 적용을 통해 컨테이너선 건조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지난해 홍콩 OOCL사에 인도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21,413TEU)

삼성중공업 측은 내다봤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MSC가 발주한 선박에 적용할 삼성 공기유통시스템은 추가적 구조 보강 없이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파도나 조류와 같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공기층을 형성, 마찰저항 저감 효과를 지속적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동원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 센터장은 “지난해 수주한 2만3000TEU 컨테이너선 6척 중 1척에 (삼성 공기유통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5척은 추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기로 합의해 순차적 적용이 예상된다”며 “이 기술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연료절감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성문 기자 ysw@

‘갤럭시A6·A6+’ 글로벌시장 순차 공개

**삼성전자,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탑재
‘돌비 애트모스’로 색다른 경험 제공**

삼성전자가 ‘갤럭시 A6’와 ‘갤럭시 A6 플러스(+)’를 공개하고, 5월 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각각 5.6형, 6.0형의 갤럭시 A6와 A6+는 18.5대 9화면 비율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 몰입감은 극대화하고 베젤은 최소화했으며, 한 손으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그림감을 제공한다. 특히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면 3차원 입체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시원한 대화면과 함께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A6와 A6+는 F1.9 렌즈에 각각 1600만·24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탑재하고, 디스플레이 빛을 광원으로 사용하며 3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셀피 플래시’를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셀피 촬영이 가능하다.

갤럭시 A6+는 후면에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 인물 사진 촬영의 재미를 극대화시켰다.



갤럭시 A6. /삼성전자

사용자는 직접 보면서 배경을 부드럽고 흐릿하게 처리하는 보케 효과를 조절할 수 있으며 빛 망울의 모양도 하트, 별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 가능하다.

‘얼굴 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텍스트(번역 및 환율), 음식, 메이크업 등의 모드를 선택한 후 피사체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빅스비’, 동시에 자주 사용하는 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앱 페어’, 데이터·이미지를 백업할 수 있는 ‘삼성 클라우드’를 제공한다.

갤럭시 A6와 A6+는 블루·블랙·라벤더·골드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시되는 모델과 색상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구서윤 기자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초소형 전기차 도입**

SK브로드밴드는 2일 구성원의 안전과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설치 및 AS 전문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에 업계 최초로 초소형 전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업무형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차량밀집지역과 좁은 골목길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총 4대의 전기를 도입해 동대문홈고객센터 등 주택밀집지역과 충전 인프라가 마련된 센터 네 곳에 우선 지급한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 홈앤서비스에서 오토바이로 업무를 수행 중인 서비스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11대를 추가 도입해 기존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현장 효율성 등을 분석해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순건 홈앤서비스 대표는 “이번 전기차 도입을 통해 서비스 매니저들의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